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친동성에 서울대 인권가이드 “반대 목소리” 점점 높아져

“서울대 미니 차별법 허용시, 한국 사회 구멍 뚫린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최근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학내 전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4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달 7일 인권가이드라인이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조만간 대학 본부에 제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대 기독교총동문회와 기독교수협의회 등 학내 기독교 모임은 지난달 21일 포럼을 열고 “인권가이드라인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반대 학생연대 소속 학생들은 교내에 부착된 대자보에서 “강제적인 동성애 의식화 교육 및 반대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총학의 인권가이드라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가이드라인은 실질적 민주성을 상실한 규범”이라며 “동성애 파시즘을 정당화하려는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은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 총장실은 최근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로 전화통에 불이 붙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하루에도 60~70통 정도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온다. 동성애 관련 내용을 반대하는 항의 등이다.”라고 밝혔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서울대에서 ‘미니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전국 대학은 물론 한국사회가 뚫린다.”고 말했다. [GNPNEWS]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1~2)

기도 | 살아계신 하나님. 정욕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 버린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대학과 청년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사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 법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제공: WMM

- 부르키나파소 아마두구 유치원 졸업식 운동회

오늘은

아마두구 유치원 졸업식이자 동네 운동회 날이다. 두 패로 나뉘어 앞쪽에는 힘이 센 남자 어른들이, 뒤쪽은 약한 아나네들이 줄을 잡았다. 땅!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영차 영차! 힘주어 줄을 당긴다. 줄을 당기다 벗겨졌는지 벗어던졌는지 곳곳에 신발들이 눈에 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집중시키고 온몸을 뒤로 실어 힘껏 잡아당긴다. 줄다리기의 비결은 힘과

연합이다. 승리를 확인하는 순간 만세와 환호성이 터지며 아이처럼 필쩍필쩍 뛰며 기뻐한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이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비추어 주시기를 구한다. 모든 영혼에 주의 영광이 회복되어 주님

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한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이 영광에 사로잡혀 전심전력으로 연합하여 줄을 잡아당기듯 선교완성을 열망하기를 구한다. 승리의 그 날, 온 교회가 심령에서 솟아오르는 감격으로 환호하며 주님을 맞게 될 날이 우리 눈앞에 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마태복음 22:37)”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21)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시죠?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누군가 당신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시죠? 왜 난데없는 시비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사이고 당신의 환자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합시다. 그 병의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유익이 된다면 환자가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알리기 꺼리시겠습니까? 더욱이 환자가 의

사의 지시대로만 따르면 확실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병이라면 당연히 환자에게 병을 정확히 알리고 이런저런 치료를 지시하시겠지요. 양심적인 의사라면 병에 대해 입을 다문 채 환자에게 “적당히 맛있는 것 드시다가 가실 때 되면 저세상으로 가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죄에 병들어 위중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당신을 이 땅에서 파멸로 몰아갈 뿐 아니라 죽어서도 결국 지옥에 가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시급한 문제는 당신이 언제 죽

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듣기 싫어하신다는 것, 기분 나빠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당신의 병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치료방법이 있고 그래서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병을 스스로 자신에게 씌우시고 당신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지옥가게 하는 그 죄의 병에서 놓임 받아 회



복되고 천국의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란 말은 당신이 빨리 죄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이 기원한다는 다른 표현이요, 당신의 심각한 영적 건강상태를 알려 주는 명의(名醫) 되신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 분만이 당신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죄의 병에서 고침 받으십시오. [GNPNEWS]

INSIDE

02 뉴스 | 아프리카 수단 현지인 돕던 목사와 선교사, 간첩혐의로 재판중

03 기획 |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기획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진 종교개혁

04 선교통신 | K국 무슬림 자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

05 인터뷰 | 김귀이 권사 “주님 만났다면 어중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멈출 수 없는 열망을 가진 한 사람

아프리카

수단 현지인 돕던 목사와 선교사, 간첩혐의로 재판중

수단에서 현지인을 돕던 현지인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순교자의소리는 최근 수단 내 다르푸르에 거주하는 알이 오 멀씨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수단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세 명과 체코 국적의 선교사 네 사람이 국가안보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유죄가 입증 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인 목회자는 하산 압둘라힘, 쿠와 샤말 등이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체코 국적의 야섹 선교사는 그동안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에게 공격을 받은 기독교인을 포함, 수단과 나이지리아에서 핍박 받는 기독교인들을 섬겨왔다. 그는 또 병원관리자로 10년간 섬겨온 데 이어 20년의 의료 현장 경험이 있으며, 그동안 순교자의소리와 협력해왔다.

2015년 12월에 수감된 야섹 선교사는 “내가 있는 감방의 열쇠는 하



▶ 야섹 선교사의 모습(순교자의소리 제공)

나눔께서 쥐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가족들을 위로했다.

한편, 야섹 선교사 가족들은 그의 상황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알리면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단 대통령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는 국제 형사재판소로부터 기소 중인 유일한 현직 국가 지도자다. 알바시르는 다섯 건의 반인륜적 범죄, 두 건의 전쟁 범죄와 세 건

의 집단학살 범죄로 기소되어 해당재판소에 의해 수배자로 간주되고 있다. 수단은 현재 이란, 시리아와 함께 미 국무부가 발표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순교자의소리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이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작성해 이메일(info@vomkorea.kr)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 ☎ 02-2065-0703 [GNPNEWS]

아메리카

미 부통령 후보, 성경인용하며 낙태 반대



▶ 공화당 부통령 후보 마이크 펜스 연설 장면 중(출처: abc news 캡처)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 마이크 펜스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낙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 후보는 지난 4일 버지니아 주에서 ‘신앙이 낙태를 포함한 공공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펜스 후보는 인디애나 주지사 재임 당시 추진했던 ‘낙태반대법’을 언급하며 “그간 인디애나 주는 여성과 반(反)낙태 대안을 모색해 왔

다. 인디애나에서 입양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주로 이끌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입양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낙태반대를 지지하겠다.”고 역설했다.

펜스 후보는 예레미야 1장 5절을 인용하며 “생명의 존귀함을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하였다’고 하신 바를 믿고 따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GNPNEWS]

한국

순회선교단, 10월중 순회복음집회 열려

10월 14일 서울에서 시작...7개 도시에서 열려

순회선교단(www.wmm119.co.kr)은 오는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경건의 열망 : 복음의 승리생활’(요일 5:4~5)이라는 주제로 순회복음집회를 갖는다. 이번 집회는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를 주강사로 각 지역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된다. 모임 일시와 장소와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다.

- ▶ 서울 10월 14(금)~15(토) 한국중앙교회(임석순 목사) ☎ 010-6327-4641
- ▶ 대전 10월 17(월)~18(화) 대전서부교회(강형식 목사) ☎ 010-5132-4641
- ▶ 대구 10월 19(수)~20(목) 대구서현교회(박혜근 목사) ☎ 010-4108-4641
- ▶ 부산 10월 21(금)~22(토) 부산영락교회(윤성진 목사) ☎ 010-8810-4641
- ▶ 광주 10월 24(월)~25(화) 광주소망교회(최정원 목사) ☎ 010-7658-4641
- ▶ 전주 10월 26(수)~27(목) 전주온누리교회(정용비 목사) ☎ 010-5146-4641
- ▶ 강원 10월 28(금)~29(토) 장소미정 ☎ 010-2090-4641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9.25 ~ 10.8)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평양 국제 적십자사, “북한 홍수 이재민, 매서운 겨울 앞뒤 걱정”

북한에서 한 달 전 발생한 홍수로 7만여 명 이재민들이 겨울이 다가오면서 생활 물품과 임시 거소가 많이 부족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28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달 말 태풍 라이온록으로 130여 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다.

하나님. 홍수로 집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의 영혼들을 도우소서. 이들의 진정한 고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소서.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화장실, ‘성 중립화’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인용 공공화장실의 성 중립화를 의무화한 법안에 29일(현지시간) 서명해 앞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공공건물에 있는 1인용 화장실에는 남녀 구분 표지판이 사라지는 대신 ‘성(性) 중립’을 뜻하는 알람판이 붙는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도덕적인 기준을 자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바꾸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영원한 진리로 돌이키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폴란드서 낙태전면금지법안 반대시위...“자기결정권” 주장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의회 앞에서 1일(현지시간) 검은 옷을 입은 시위대 수천명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시위대는 검은색 깃발과 배너를 흔들며 “권력에 있는 광신도들을 멈추게 하자.”고 외쳤다.

만주의 주님. 모든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생명의 문체까지 주관하려 하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께 돌이키게 하소서.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갈등 ‘일촉즉발’, 1만명 대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영토분쟁이 악화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1만명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다고 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가 보도했다. 인도국방부는 “양국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집을 잃고 분쟁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카슈미르의 수많은 영혼들을 지키소서. 또한 죄로 말미암은 우리 영혼의 전쟁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내게 하소서.

호주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해”

호주 시드니 남서부 리버풀의 한 주택에서 총기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에 폭 빠져 있던 아들(20)을 아버지(56)가 다그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인터넷 선을 끊자 분노한 아들이 흥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4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주님.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봅시다. 오, 주님. 도우소서. 게임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가정을 회복하여 주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6년 10월 3주 ~ 10월 4주

10월 3주(10.17~10.22)

- ▶ 경기 광주 / 동산의샘교회 (김시환) 031-765-3927
- 10.17~21(07시~23시)
- ▶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 010-7439-7020
- 10.18(12시~20시)
- ▶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 (김**) 010-3290-4316
- 10.20~21(06시~18시)
- ▶ 전북 전주 / 전주사론교회 (진**) 010-2638-1440
- 10.21(08시~20시)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정**) 010-7163-3949

10월 4주(10.24~10.29)

-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김희락) 031-750-1009
-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은선) 061-271-9981
- ▶ 대구 동구 / 대구호산나교회 (정**) 010-3822-8040
- 10.28(08~20시)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정**) 010-7163-3949
- 기도참여 문의
-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진 종교개혁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다. 이에 전 세계의 다양한 기독교공동체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리고 있다.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상황과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종교개혁의 의미와 교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살펴본다. <편집자>

종교개혁이 어떻게 유럽에서 시작됐을까? 또 마틴 루터 같은 개혁자의 요구에 대해 독일을 포함 유럽 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위기 상황의 한국 교회 앞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당시 유럽사회와 각국에서 나타난 개혁의 흐름과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개혁의 필요가 충만한 유럽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AD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국교' 선언으로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라는 온실 속에서 중세교회는 초대교회 시절 고난과 핍박 가운데 형성된 복음의 본질을 차츰 잃어갔다. 또 교회가 권력과 부를 점유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1000년 이상 철옹성같이 지켜온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가 한계에 달해, 가톨릭 교회의 최고지도자인 교황과 사제들의 타락과 부패상이 날날이 드러나면서 교회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 세상은 이같은 교회의 타락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작가들은 교회의 부정적 타락상을 소설이라는 형태의 문학 작품으로 고발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단테의 '신곡'이나 보카치오의 '데카메론'과 같은 문학 작품은 교회의 타락상을, 에스파냐(스페인)에서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같은 소설로 이상주의에 빠져있는 로마 가톨릭을 간접적으로 묘사했다.

이같은 시대정신은 미술, 철학, 과학 기술 등 사회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며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술은 교회 타락을 그림과 조각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목판 조각 '지옥의 아가리로 밀려들어가는 교황과 감독'이나

유곽(遊廓, 많은 창녀를 두고 매음 영업을 하는 집)을 방문한 황제를 그린 '서양사회 풍속도' 같은 그림은 당시 교회의 타락과 퇴폐적인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철학은 스킨라시즘, 아리스토텔레스이즘, 플라토니즘 등 사상적 다원화로 인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회의적, 비판적 경향을 보였다. 과학 역시 관념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여기에 활판기술이 등장, 각종 문헌을 신속하게 유럽 전역으로 퍼다 나르며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했다. 루터의 '95개조 논제'는 이같은 인쇄술에 의해 한 달 만에 전 유럽으로 확산되며,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독일에서 시작된 가톨릭 교회의 붕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붕괴는 독일에서부터 본격화됐다. 이는 독일의 정치적 상황과 가톨릭 교회의 부패, 르네상스라는 시대의 흐름이 어우러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시 국경이 확정되지 않았던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의 틀 안에서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있다고 여겼다. 7명의 선제후들이 독일 내 각 지역을 관할하며, 이들은 또 제국의 황제를 추대할 수 있었다. 이 같이 황제 선거권이 있는 선제후 중 한 사람인 작센 지방의 프리드리히 선제후의 도움으로 루터가 교황권을 부인하는 과격한 주장을 하고도 사형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환경에서도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교황청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구조였다. 국토의 5분의 1이 교회 소유라는 독일 상황에서 소작료를 강압적으로 징



▶ 지옥의 아가리로 밀려들어가는 교황과 감독(목판 조각, Collection in Coburg Castle, 16세기). 종교개혁 전야에 대중의 불만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준다.

수하는 교회 영주인 사제들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드높았다. 이 같은 구조에서 교황청에 대한 독일의 부담금 부담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주변국보다 높았다. 이에 영주 등 주지에 대한 농민들의 반감은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농민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의 교황권에 대한 불인정, 루터에 의해 비성경적이라고 판명된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 같은 개혁안은 다수 독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교황권을 거부하며 로마와 관계를 단절하려는 종교개혁운동에 대해 개혁성향이 있는 독일 선제후들 역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루터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95개조 논제 발표로 유럽 최고의 신봉 명문으로 부상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설립자 역시 프리드리히 선제후였다. 교수로서 루터의 도움이 필요했던 프리드리히 선제후는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돼 로마로 소환령을 받은 루터에 대해 로마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독일 황제의 면책권을 받아주기도 했다.

한편, 교회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농민전쟁의 폐해를 지적하는 종교개혁 반대파인 가톨릭연맹에 의해 종교개혁 지지세력이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 기회를 틈타, 개혁세력을 제거하려던 카를 5세 황제는 슈파이어 제국의회를 소집, 개혁세력인 루터파에 대한 불관용 정책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개혁세력들은 1529년 카를 5세에게 공식적으로 항의문서

를 제출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조롱받던 개혁파의 또다른 이름, 프로테스탄트

개혁세력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나, 황제에 대한 순종이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황제에게 항거하는 개혁세력을 향해 가톨릭측은 '항거자'(Protestant)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놀리듯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듯, 가톨릭 교회에 반대하는 복음적인 개혁세력의 교회를 일컫는 용어로 여겨지게 됐다.

한편, 이 시기는 현실적으로 개혁세력에게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문에서 나타났다. 이슬람세력인 터키가 다뉴브 강을 통해 침공하려고 해 이들을 함께 막아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덕분에 종교전쟁이 뒷전으로 수그러들며 그 사이에 루터파가 서서히 세력을 불려가며 자리 잡아 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처럼 종교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미한 개혁세력은 바람 앞에 선 촛불처럼 위기의 순간이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로 개혁교회는 서서히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GNPNEWS]



▶ 종교개혁전야의 서양사회 풍속도(브로츨라프, 독일, 1470년경). 당대의 퇴폐적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황제로 보이는 지체 높은 신사가 유곽을 방문하고 있다. 황제 지기스문트가 유곽을 방문했다고 하는 에피소드를 소재로 하여 그린 것으로 보인다.

REFORMATION



선교 통신

“무슬림 자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

그동안 교제하며 지내오던 카시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학 동안 자매가 고향에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하지 못했던 러시아어 성경 읽기(요한복음)를 개학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를 마치고 방학 동안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던 중 카시자매의 엄마가 최근 건강 문제로 수술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자매가 많이 어려웠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자연스럽게 저희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말해 주



었습니다.

무슬림 배경으로 자라온 자매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뭇 놀라는 표정을 지

었습니다. 저희의 나눔을 들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갖기 원한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알아왔던 자신의 신앙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는지 자신에게는 너무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저희도 기다려 주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비록 이번에 결단은 하지 못했지만 카시의 마음에 복음이 심기고 주님이 그녀의 마음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더욱 구하며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카시와 그의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 모두 카작족 자매들로 먼 지방에 고향을 둔 타지인이었습니다. 모두 처음 만나게 된 관계였지만 기쁘고 평안한 시

간을 보내게 되면서 작은 모임으로 이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카시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매주 작은 가정 모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직 카시도 주님을 영접한 상태는 아니지만 매주 모임을 통해서 삶의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나누는 이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여름에는 우리와 떨어져 한 국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는 사랑하는 두 자녀들이 방학을 맞이해 이곳에 와 똑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학기를 마치면 첫째 딸 아이는 열방으로 2년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돌아가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아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도 때로는 고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길은 고독해도 우리의 심령은 날도 담대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결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을 구하며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열방의 모든 영혼이 우리의 참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까지 이 일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분 사랑 승리! [GNPNEWS]

K국=서화평, 최은유 선교사

선교 통신

파키스탄 ‘명예살인 처벌 강화 법안’...의회 만장일치로 통과돼

파키스탄에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는 행위인 ‘명예살인’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가족의 감형 요구권을 최소화하는 명예살인 처벌 강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AP, AFP통신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 법의 핵심은 명예살인을 당한 희생자의 가족이 범죄자를 만일 용서하게 되면 처벌하지 않게 되는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지난해에만 간통,

부적절한 의상 착용, 배교 등에 연루된 1000명 이상의 여성이 아버지, 남편, 남자 형제 등에 의해 명예살인의 이름으로 살해당했다. 그런데 그동안 희생자 가족이 범죄자를 용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받아들인 기존 법에 따라 명예살인 범죄자 대부분이 면죄부를 받았다.

새 법이 시행되면 명예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반드시 징역 25년 형에 처해지며, 피해자 가족도 용서할 권한이 없다. 다만, 범죄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징역형

으로 감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약 4시간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법안 지지자들은 감형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어야 한다고 아쉬워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첫걸음을 뒀다며 환영했다.

이러한 명예 살인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지난 7월 파키스탄의 유명 블로거이자 모델인 찬달 발로치(26)가 오빠에 의해 목이 졸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증폭됐다.

[GNPNEWS]



▶ 오빠와 밤 아집 발로치(아래)에게 명예살인을 당한 파키스탄 모델 찬달 발로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기획

〈3면에 이어〉

종교개혁이 남긴 그림자

종교개혁자로 루터와 츠빙글리, 칼빈의 역할은 지대하다. 가톨릭 교회 시대부터 내려온 왜곡된 신학을 바로잡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비장하고 철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가톨릭에서 내려온 전통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

루터의 경우, 토지개혁을 요구한 농민들의 집단행동을 처음에는 지지했다. 그러나 이 요구가 폭동으로 발전, 농민들이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영주와 귀족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화형시켰다. 그러자 루터는 다시 입장을 바꿔, 강도질하는 농민 폭도는 진압돼야 한다는 논지의 글을 발표,

영주들 편에 선다. 이같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루터에 의해 양측의 살육이 정당화되도록 하는 오점을 남겼다.

‘기독교 강요’란 책자 등으로 오늘날 개혁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다진 존 칼빈은 루터에 이어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다. 또 세속화되고 문란한 도시였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며 제네바의 노동윤리, 공공교육, 시민경제 개선 등 윤리적 개혁과 삶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재세례파 펠릭스 만츠를 강물에 수장해 죽이고,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한 세르베투스

를 이단 혐의로 가톨릭에서 사용하던 화형으로 죽이는 등 교리문제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루터는 또 성찬신 신부의 기도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부정하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동체설을 주장했다. 이같은 관점을 고수한 루터는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봐야한다는 츠빙글리와 논쟁 끝에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빛나는 영광 뒤에 어두운 그림자 또한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화형 당하는 안 후스(Bohemian Richentalova Kronika, 15세기초)

하지만 루터에 의해 시작되어 츠빙글리와 칼빈 등에 의해 정립된 종교개혁의 과정들은 중세 암흑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이 드러난 역사로 남게 됐다. [GNPNEWS]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6. 9. 24 ~ 10. 5 (가나다 순) 개인
강주선 김강춘 김경선 김기형 김득기 김유남 김은영 박숙자 박은길 신유정 안은경 이복길 이정희 이준진 이현희 정해근 조경미 조명숙 조세라 조정민 조형광 최근희 최정숙 표순호 무명

교회 및 단체

검단교회 겨자씨선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포전원교회
김화제일교회 높은뜻하늘교회
마중물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부천좋은가리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시은좌교회
열매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 구독, 헌금, 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만났다면 어중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예수 전도자 **김귀이 권사**



아직 한창때인 32살 젊은 나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렸다. 아무 만족도 소망도 없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였다. 처절한 절망 끝에 예수님이 홀연히 찾아와 주셨다. 유행가를 즐기던 자에서 찬송을 부르는 자로,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된 김귀이 권사(64.전주산돌교회)를 만났다.

-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지난여름에 3주 동안 아프리카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복음 캠프를 섬기면서 큰 은혜를 누렸어요. 나이 많은 제가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많이 뒤처지지 않을까 염려했어요. 그런데 저를 잘 배려해줘서 기쁘게 섬겼어요.”

-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마냥 자유롭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에 의논하지 않고 청소년 복음캠프에 가기로 결정하고 신청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출장을 다녀온 남편에게 복음캠프 참석에 대해 의논하니 본인도 가고 싶다고 말해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하는 일이라면 다 반대하던 사람이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저의 억척스러운 신앙생활 때문에 남편과 관계가 늘 어려웠거든요. 누구나 섬길 수는 있지만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터라 남편은 참석할 수 없었어요. 아쉬웠지만 감사했어요. 올해 후반기는 다른 훈련들은 받지 않고 남편을 섬기고 교회에서 늘 해왔던 노방전도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인 기도에 더욱 전념하려고 해요.”

- 억척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요?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 됐어요. 습관적으로 평생 해오던 제사를 끊는 등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또 서재에 가득했던 잡지들, 방안 한쪽 벽을 채웠던 인형들도 죄다 내버렸죠. 그렇게 즐겨 부르던 유행가가 어느 날부터가 듣기도 싫어졌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가사가 너무 유치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차만 타면 남편이 듣던 유행가 테이프를 숨기고, 집에서 보던 TV 채널을 돌려버려서 남

편과 많이 다뤘어요. 사소한 영역들은 지혜롭게 정리했어도 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유난스럽게 예수님을 믿는다고들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모든 세상 관심을 끊어

-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신기해요. 주님이 어떻게 저 같은 자를 만나주셨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도하던 자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방했는데 말이죠. 우상숭배가 만연한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정말 들리지 않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병에 걸리면서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막내아들을 낳을 32살 때쯤부터 원인 모를 병에 걸렸어요. 출산 후, 두 번의 의료사고로 사경을 헤매면서 병원을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고통밖에 없는 환자 생활이 시작됐어요. 갓난아기한테 젖 한 번 못 물리고, 남편마저 위로해 주지 않으니 죽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때 죽었더라면 저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졌겠죠.”

-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주님이 건져내 주셨나요?

“막내아들이 세 살 쯤, 죽도 약도 못 먹고 이불을 뒤집어쓰는 채 끙끙거리며 앓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어떤 모양의 불이 제 이마를 강타하는 것을 느꼈어요. 십자가 모양이라는 것만 알겠더군요. 그 후, 갑자기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말로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제게 일어난 거죠. 불현듯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기적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셨

더군요.

“네, 다음날 이웃집 사람이 예수쟁이가 주더라면서 테이프 하나를 제게 건네줬어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간증이었어요. 듣는 내내 그 내용이 점점 믿어졌어요. 다른 건 몰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겠더군요. 교회를 나가고 싶는데 방법도 모르고 또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을 찬성할 리 없었죠. 교회를 다니던 친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남편이 무척 예뻐했어요. 그의 부탁해 제가 기적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죠. 교회 가기 몇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고서는 그 동생 집에 가서 ‘교회 언제가? 언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예배당 문을 밟자마자 회개가 확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저 이제 왔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첫 예배를 드렸죠. 그때부터 예배란 예배는 모두 참석하고, 교회를 등록하자마자 전도도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을 깨닫고

- 예수 믿고 바로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불신자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더군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 중에 나이롱 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화를 냈어요. ‘이 사람이, 당신만 천국 가고, 나는 지옥 보내려 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봐도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때 깨닫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내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맘껏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주일 아침마다 저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도 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 동네 사람들도 숨을 정도면, 가족 분들에게는 더 열심이셨겠어요.

“맞아요. 한번은 어떤 이웃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그가 되레 저더러 당신 남편은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믿겠냐고 물으니까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한 후, 1년 안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그 무렵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남편을 전도하겠다고 했으니 걱정이 되더군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에 나가 기도했어요. 말로 다 표현 못 할 시간이었죠. 새벽기도 못 가게 남편이 제 신발이랑 옷을 감추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알람시계도 감춰버리곤 했어요. 가까스로 교회를 다녀오면 아이들 밥 먹어서 학교 보내야 하는데, 이번에는 집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여자라고 남편 회사에 소문이 나서 남편 지인이 제발 교회 좀 나가지 말라 달라고 말릴 정도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예수님과 자신 중에 고르라고 하더군요.”

“예수님도 필요하고 당신도 필요해”

- 주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했던 순간이네요.

“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번쩍 ‘나는 예수님도 필요하고, 당신도 필요해.’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주신 명언 중의 명언이었죠. 예상치 못한 답을 듣게 된 남편은 어안이 병병했어요. 덕분에 이혼의 위기를 넘겼어요. 남편의 신발이라도 붙잡고 기도할 만큼 눈물의 시간을 보내다 약속된 1년 쯤 된 어느 날, 남편이 주일 아침에 제게 말을 걸더군요. 교회에 몇 시까지 가는 거냐고요. 계속 기도는 했지만 설마 했어요. 그런데 딱 시간이 되자 남편은 머리며, 웃이며 단정한 차림으로 교회에 왔어요. 그날 교회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 함께 신앙 생활하면서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부터 제 삶은 더욱 십자가였어요. 믿음은 없는데 교회가 돌아가는 과정이나 행사들을 빼히 아니니까 저를 더 옥죄더라고요. 하지만 새벽기도를 나가면서 남편

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희가 독서실을 운영했는데, 남편이 하던 야간 근무를 제가 도맡아 했어요. 남편과 함께 새벽기도에 가기 위해서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듯이 남편은 어느새 그동안 믿음이 성장해서 지금은 장로까지 되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죠.”

- 권사님의 신앙생활에 자녀분들은 어떠셨어요?

“후에 들은 얘기지만 사실은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검소하게 사는 것이 저희 집의 원칙이에요. ‘목구멍 넘어가면 똑같으니 비싼 밥 먹지 말자, 저렴한 것 사서 가볍게 입자.’ 이러니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전도를 위해 각종 김치를 담궈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막내아들이 특히 심부름을 많이 다녀왔어요. 귀한 아들 왜 그렇게 부려먹느냐고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초점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생이 된 막내아들이 어느 날은 저를 보자고 해요. 원망을 늘어놓을 줄 알았는데, 자신을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어리광이 늘어서 사람들 앞에서 분이 되지 못할까 봐 따뜻하게 한번 안아준 적 없었는데...”

-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오셨네요.

“은혜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알까? 지금도 그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전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저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는데, 사랑하는 내 주님이 비방을 받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해서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으시지요?

“물론이죠. 작년에 교회 주위에 큰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제가 전도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여름에는 시원한 차로,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나누며 매일 사람들을 만났어요. 발에 염증이 날 정도로요. 소란스럽게 전도하면서 금방이라도 사람들이 올 것 같았는데 연말에 결산해보니 맺은 열매가 없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심정이었어요. 그때 ‘주 안에서서는 헛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다시 전도를 나갔어요. 지금이라도 전주 시내에 띠를 두르고 뛰쳐나가서 전도 하고 싶을 만큼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소망의 복음(2)

멈출 수 없는 열망을 가진 한 사람

사랑해서 시작한 가정도 서로에 대한 열정과 소원이 사라지면 악만 남는다. 가족도 원수가 된다. 이처럼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기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고통만 남는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18)는 말씀처럼 꿈이 없는 인생은 이러저리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 한 개인이 꿈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더 볼 게 없다. 하물며 교회가 꿈을 잃으면 어찌 될까?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존재는 없다. 누구나 그 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소원이 자아의 욕구라는 게 문제다. 자아의 욕구대로 살고 싶지만 양심이 소리를 지른

다. 복음의 결론이 너무도 분명하지만 육적인 소욕과 양심의 합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단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약 1:18)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대한 욕망

구약 성경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을 꼽으려면 주저할 것 없이 다윗을 지목하고 싶다. 베들레헴 들판의 어린 목동에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주인으로, 정처 없는 도망자 신세에서 승리의 제왕으로, 척박한 광야의 야전에서 화려한 백향목 궁궐의 주인으로, 더 나아가 당대의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군주가 된 다윗, 그와 같이 드라마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그는 시인이었고, 목동이었고, 용

맹한 전사였고, 보좌 위의 왕이었고, 영적으로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을 가진 자였다. 어느 모로 보나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자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성취한 뒤에도 그 안에 멈출 수 없는 갈망이 있었다. 그의 영혼 안에는 어떠한 성공도, 대단한 성취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었던 욕망과 갈망과 열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었다. 그 열망은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인생의 절정에 올랐을 때 분출되었다. 여부스 족속의 손에 있던 하나님의 이동식 통치 보좌인 법궤와 성막을 옮겨왔다.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픈 소원을 피력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차오르는 열망은 끊임 없이 않았고,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성전을 향한 그의 열망,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 단순한 건물

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욕망과 열망,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부여주시기 위해 창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2016.2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아이는 그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원했다

지방에서 선교동원을 하며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할 때 일이다. 어느 날 동역하던 간사님이 지나가는 말을 하듯 물었다. “선교사님은 세 아이의 어머니니까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당시는 “네. 그래요. 아이들을 키우며 여러 상황을 통해 주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돼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 편에 계속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다가도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적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삶을 뒤돌아보니 아이들을 키우며 11년 차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과정을 겪었다. 준비도 없이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었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는 고사하고 엄마가 어떠한 존재이고 의미인지 스스로 정의 내리며 살아야 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울며 보챌 때는 아픈 것인지, 뭘 원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순간들도 많았다. 유명 육아서적과 인터넷을 뒤져가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되고 한계가 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아이들의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 더 큰 부담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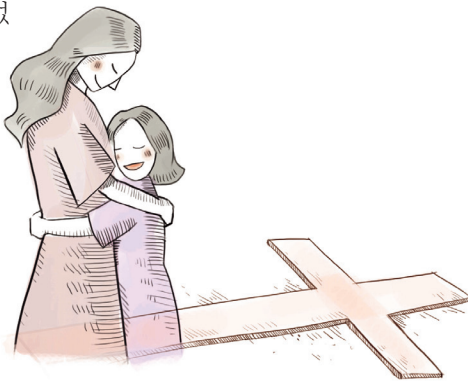
어느덧 큰 딸이 10살쯤 되었을 때였다. 함께 사는 사역자들이 늘고 센터에 방문하는 외부 기도자들

도 많아지면서 섬겨야 할 사역이 늘어났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에도

나는 세 아이들과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고, 목상도 나누고, 어린이 선교훈련도 하며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했다. 그런데 첫째 딸이 “나는 엄마가 수아 엄마만 했으면 좋겠어요. 산책도 돌이서 가고 싶어요.” 이젠 또 무슨 말인가 싶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아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또박또박 부를 때는 주로 부탁할 때, 혼낼 때, 명령할 때였다. 그 외에는 늘 세 아이를 한꺼번에 “애들아~”하고 부르고 있었다. 항상 이해하고 오히려 헤아려 주던 큰 딸이 원하는 것은 소박하게도 “수아야”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다.

딸은 멋진 믿음의 영웅이 된 엄마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맞춰주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나누며, 단 둘이 손잡고 산책하고,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나뉘던 목상을 곱씹어 마주 앉아 복음일기를 쓰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분초마다 함께 하신



것처럼, 작디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가는 것,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면 충분했던 것이다.

비로소 ‘좋은 엄마 되기’라는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죄인 된 나를 복음으로 낳아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늘 불러주고 계신 것처럼, 주님은 가장 어둡고 메마른 ‘엄마’라는 영역 안에서 이미 분명하고 생생하게 응답하고 계셨다.

얼마 전 다음세대를 선교사로 양성하는 기독교대학에 지원한 딸이 친구에게 “선교사 자녀로 사는 건 힘든데 선교사로 사는 건 행복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길러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걱정 없이 예수님 따라가는 엄마로, 동역자로 함께 서길 기도한다. [GNPNEWS]

이현지 선교사

<5면에 이어>

Interview

“하나님과 단절이 더 큰 환란이고 고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는 시대가 지나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과 함께 할 천국이 있다는 것은 알려줘야 할 것 아녜요? 그러던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초라한 모습의 저를 향해 주님이 말씀해주셨어요. ‘네가 뭘 안 해도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제 심령을 때렸어요. 이제는 열매 없는 것으로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 복음을 알고 나서 특별한 신앙훈련을 받으셨나요?

“7년 전쯤에 신뢰하던 한 목사님의 권유로 선교관학교와 중보기도학교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 그 훈련을 받아보라는 제안을 받고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분명 복음을 만났는데, 또 무슨 다른 복음이 있고 훈련이 필요한가 하고요. 그래도 그분이 신학생 때 함께 기도하고 식탁 교제도 하던 사이라 내게 필요하니 권해주셨는지 하고 순종했죠. 6개월간의 선교관학교에 참여하기 위해 원서를 들고 찾아간 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곳이 마치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같았거든요. 그곳은 바로 내 형제들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바라볼 집, 하늘 본향 같이 느껴졌어요. 6개월간 정말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그 후, 정

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생명으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껏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이끌어 오신 은혜의 삶인 것을 더욱 알겠더군요. 확실히 주님을 만났다면 어중간한 삶은 살 수 없어요.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이에요.”

- 끝으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정말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사람들이 이게 무슨 꼴이냐 해도 저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으니 두렵지 않아요. 제게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더 큰 환란이며 고난이에요. 나이 먹었다고 제치지 않고 함께 가자 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며 살고 싶어요. [GNPNEWS]

S.Y.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선교완성을 꿈꾸다

선교적 삶을 살게 된다는 선교훈련 과정을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권유 받았다. 선교에 대해서 어렵 쏘이 알고는 있었으나 내가 직접 선교의 사명을 띠고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선교는 특별한 사명과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나라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거나, 산골 오지에서 고생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선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쯤으로 알았다. 하지만 이 훈련학교에 관한 설명을 보면서 두려움보다는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 훈련에 임하게 되었다.

첫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그때 주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지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진정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 주 한 주를 보내다 어느 날 한 성경 구절이 내 뇌리를 스쳤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

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초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선교
선교가 완성되어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

는 나는 선교가 완성되는 일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선교적 삶, '선교 완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고, 내 삶과는 무관하다고 여겼기

“
선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 내게
복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자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보자 생각했다
”

때문이었다. 이런 내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복음 앞에 세우신 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선교적 삶과 선교완성을 꿈꾸게 하셨다. 이 복음은 나 혼

자만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내 가족, 교회, 국가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임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지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해도 그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보자고 생각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따라만 오면 된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때 깨달았다. 선교적 삶이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평강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런 나의 삶을 통하여 선교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마라나다!

[GNPNEWS]

김옥문 장로(정림제일교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차 계신 것만 같습니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은 “북한 지하교회 순교사, 이반석, 2015(문광서원)”에서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리 하나님을 믿었구나!”

중국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성경공부를 시작한 정금(가명)은 현지 일꾼이 건넨 간증을 들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그림으로 그려진 만화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하루 이를 꼼짝하지 않고 만화성경을 읽고 나니 전체 줄거리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에 전념하였다.

“야~야! 선생님, 성경이 대단히 재미있습네다.”

“무슨 내용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창세기, 사사기, 룯기, 예스터, 요나,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부분이 이야기로 되어 있어 대단히 재미있습네다.”

정금은 15일 동안 성경공부를 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야~ 저거 정금이 맞나? 사람들이 신경 나게(나쁘게) 굴면 그 꼴

을 보지 못하던 정금이 저렇게 생트집을 잡으면서 신경 나게 하는데 싸우지도 않고 완전 다른 사람이다.”

장사로 돈벌이를 하다 보면 싸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때의 정금은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가족 안에서는 물론이고 장사를 하며 사람들의 욕심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싸울 일을 만드는 것을 보면 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싫어한다고 배웠는데 참을 수 있게 도와주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공부하고 북한으로 돌아가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면 부글 부글 끓어오르고 복잡한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주 기도하게 되고, 그런 정금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주위 사람들이 ‘불같은 정금이 성격 다 죽었다. 사람이 대상할수록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

니라 조금이라도 더 갖고 이익을 챙기려고 싸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조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저렇게까지 안 되겠는데, 하루빨리 모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소.”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금이 가장 힘든 것은 마음대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소리 내어 기도와 찬송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상할 때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싶었다. 그럴 때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내어 찬송을 불렀다.

♪ 죄짐 말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진 걱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찬양을 부르는 정금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내 속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까?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형편도, 내 어려움도, 내 걱정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차 계신 것만 같아서 정말 속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라고 감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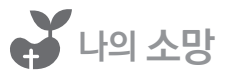
정금은 믿음이 자라가면서 ‘북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십일조를 하



▶ 북한 성도가 북한으로 가져가기 위해 휴지 위에 쓴 성경말씀 (출처:모퉁이들선교회)

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아~ 내가 벌은 데서 구별하여 헌금하기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십일조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때부터 십일조를 따로 구별하여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북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신다. [GNPNEWS]



내 평생에 가는길

찬송가 413장(통470장)은 D.L.무디와 절친한 친구였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가 지은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스페포드는 어린 아들을 잃은 몇 년 후, 대서양 한가운데서 프랑스 여객선 침몰로 네 딸마저 한꺼번에 잃었다. 그 사건 이후 동일한 그 바다를 지날 때였다. 칙흑같이 어두운 밤 어린 딸들이 잠졌을 그 차가운 바다를 보며,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올라왔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짚었다. 깊은 새벽,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과 함께 고백이 터져나왔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틀림없다. 죽음 앞에서든, 고난과 풍파 앞에서든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 받는다. [GNPNEWS]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16 일일금식기도성회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정**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1:16)

일시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10시~오후10시

장소 |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

주관 | 복음기도동맹

문의 | 복음기도동맹사무국

010-4910-4641, gnpall@daum.net